

04 중 학교 3 년

중등 생활기록부, 고입에 어떻게 쓰이나

무엇이 읽히는가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적으면 안 되는 것	3
03 그러면 무엇을 적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배제사항 여덟 가지** — 대회·영재원·어학점수·학원
- ◆ **못 쓰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을 나란히 놓은 표
- ◆ 남는 자리는 전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그 설계의 뜻
- ◆ 중1·중2·중3에 각각 할 일 · 「**생기부 컨설팅**」을 조심해야 하는 까닭

01 · 먼저 사실부터

두 곳에서 읽힙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고입에서 두 번 읽힙니다. 한 번은 성적으로, 한 번은 글로. 그런데 글로 읽히는 자리에는 적으면 안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적으면 벌점을 받습니다.

단계	무엇을 보나
1단계	학생부 성적 — 갈래마다 보는 과목이 다릅니다
1단계 서류	학생부 기록 + 자기소개서
2단계 면접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둘째·셋째 줄이 이 편의 주제입니다. 성적 이야기는 앞 편에서 했으니, 여기서는 글로 읽히는 자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

서류에 적은 것을 학생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천 교사를 함께 면담해 진위를 확인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잘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만 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요항. 벌칙의 강도와 문항은 학교마다 다르다.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02 · 적으면 안 되는 것

배제사항

자기주도학습전형에는 「배제사항」이 있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소를 평가에서 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적으면 안 되는 것	
1	각종 대회명과 입상 실적 (KMO·올림피아드 등)
2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여부
3	장학금
4	교과 성적과 인증시험·공인어학시험 점수
5	자격증
6	논문·도서·지식재산권·해외활동
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8	사설학원 활동

벌칙은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에 따라 그 단계 최하등급이 되거나 0점·감점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우회적 기재도 함께 금지됩니다.

이 마지막 대목을 특히 보십시오. 대회 이름을 안 쓰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 상을 받고」라고 적어도 걸립니다.

출처: 요항에 배제사항을 명시한 학교들의 문구. 항목과 벌칙의 강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그 해 요항을 확인하십시오.

03 · 그러면 무엇을 적나

남는 자리

배제사항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를 보겠습니다.

못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입상	학교 수업에서 한 탐구
영재원 수료	동아리에서 한 활동
공인어학 점수	읽은 책과 그 뒤의 생각
학원 활동	혼자 찾아본 과정

오른쪽 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 전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형은 학교 교육으로 자란 학생을 뽑겠다는 설계입니다. 바깥에서 사 온 실적을 일부러 못 쓰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큰 것은 이것입니다

수업 중에 생긴 물음과 그것을 스스로 따라간 과정. 결과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이 아이 것이면 됩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도 그 과정입니다 — 「왜 그것이 궁금했나」, 「어떻게 찾아봤나」, 「무엇을 알게 됐나」.

실적으로는 답할 수 없고 과정으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출처: 각 학교 요항의 평가 영역. 면접 문항과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학년별로 할 일과 점검표

학년	무엇을
중1	관심 가는 것을 여러 개 건드려 봅니다
중2	그중 하나를 이어서 해 봅니다
중3	해 온 것을 말로 정리합니다

중2의 「이어서」가 핵심입니다. 한 번 한 것은 기록이지만 이어서 한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면접에서 답이 되는 것은 이야기 쪽입니다.

그리고 중3에 몰아서 만들 수 없습니다. 없던 것을 적을 수는 없고, 적어도 면접에서 드러납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배제사항 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 ☐ 우회적 기재도 금지 인 것을 아는가
- ☐ 학생부에 학교 안의 활동 이 쌓이고 있는가
- ☐ 이어서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 ☐ 아이가 그것을 말로 설명 할 수 있는가
- ☐ 「왜 궁금했나」에 답할 수 있는가
- ☐ 바깥 실적을 쌓는 데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 ☐ 학생부를 학기마다 확인 하고 있는가

일곱째를 특히 보십시오. 배제사항에 들어가는 실적은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쓴 시간과 비용은 이 전형에서 값이 되지 않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생기부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조심하십시오. 학생부는 선생님이 적는 것이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넣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면접에서 그 글을 학생이 설명해야 합니다. 남이 쓴 글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값이 되는 것은 아이가 실제로 한 일뿐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중등 학생부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상을 받은 게 있는데 정말 못 쓰나요?

교외 대회 입상은 못 씁니다. 자기소개서에도, 면접에서 말해도 안 됩니다.

학교에 따라 그 단계 최하등급이 되거나 0점·감점입니다. 그러니 「몰래 흘리면 유리하지 않을까」는 반대로 갑니다.

다만 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배운 내용과 겪은 과정은 남습니다. 「대회」와 「입상」이라는 말만 빼고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알게 됐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못 쓰고 과정은 쓸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표현이 우회적 기재로 읽히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일반고로 갈 아이도 중등 학생부가 중요한가요?

고입에 쓰이는 정도로는 덜합니다. 일반고는 대개 배정이고, 학생부를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부를 쓰는 습관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대입에서는 학생부가 훨씬 크게 쓰입니다. 수업에서 물음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중학교에서 해 본 아이가 고등학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안 해 본 아이는 고1에 처음 배웁니다. 고1은 그럴 여유가 없는 학년입니다.

그러니 고입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때문에 중등 학생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줄로 남기면

바깥 실적은 못 씁니다. 남는 것은 학교 안에서 아이가 실제로 한 일이고, 면접에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 공개 요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벌칙의 강도와 문항은 학교마다 다르다. 그 해 요항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정해집니다.